16

직업 상담 전문가 '직업상담사'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상담사 손민정

20대, 30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7%입니다. 이는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도 업무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3년 안에 첫 직장을 관두는 사람도 10명 중 6명이나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 상황이지요.

어릴 때부터 은퇴 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까?', '내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하는 고민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직업과 관련된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상담사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아실현, 생계 등의 이유로 무엇보다 신중하게 고민하는 직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직업상담사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직업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직업상담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 직업상담사가 하는 일은? 직업과 관련된 각종 문제의 해결사!

직업과 관련돼 각종 문제를 겪는 사람을 돕는다
취업 알선, 초·중·고교생 대상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년 및 노인 취업상담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정보는 필수!

직업상담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혹은 취업을 했더라도 직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 등 직업과 관련된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취업 알선은 직업상담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거나, 직원을 뽑고 있는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직업상담사는 다양한 직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원의 일과를 관찰하거나, 공항에 가서 승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는 등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실제 직업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처럼 초·중·고교생들이 미래 희망 직업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직업상담사의 일입니다. 혹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상주하며 직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상담사로 활동하기도 하지요.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것도 직업상담사의 몫입니다. 심리검사나 적성검사를 진행한 뒤에 결과를 분

석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어떤 직업이 적합할지 조언하고, 청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로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청년만이 아니지요. 은퇴 후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자리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 직업상담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공감 능력부터 직업의 미래 예측하는 분석력까지

취업상담이 주 업무
▶경청하는 자세와 공감 능력은 필수!

다양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자리 추천
▶풍부한 직업 관련 정보를 가지는 게 중요!
▶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연구
▶새로 생기는 직업에 관심 기울이고 직업 전망 예측까지!

직업상담사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며 직업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따라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와 그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은 직업상담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입니다.

사람마다 성격, 성향, 가치관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각각의 사람에게 적합한 일자리 또한 다를 수밖에 없지요. 직업상담사는 개개인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주기 위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분석력과 함께 수많은 직업에 대한 박식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 간 연봉이나 근무환경의 차이 등 한 직업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정보가 넘쳐나므로 직업상담사에게는 직업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AI(인공지능)가 발달하면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라질 직업은 어쩔 수 없더라도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직업상담사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새로 생기는 직업을 끊임없이 살피는 끈기와, 직업의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력도 필요합니다.

▼ 직업상담사가 되려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관련 경험 쌓아야

대부분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입문

수많은 직업 관련 정보 사전에 모두 얻기는 어려워
▶직업상담사 된 후에도 공부 계속해야

직업상담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두 시험 모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지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제 상담경험을 가진다면 훨씬 전문적인 직업상담

사가 될 수 있겠지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 경영 또는 경제학, 법정계열학, 교육심리학 등을 전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상당히 방대하므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숙지한 후에 직업상담사로 입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민정 직업상담사는 자신 또한 "업무와 병행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직업상담사로 입문한 후에도 직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직업상담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수많은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는 필수입니다.

▼ 직업상담사,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수많은 직업 중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아라!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몇 개의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국직업사전에서 직업의 수를 살펴봅시다. 2003년 직업의 수는 7980개, 2012년 직업의 수는 9298개입니다. 직업이 9000여 개나 있다는 것도 충분히 놀랍지요. 그런데 2016년 직업의 수는 무려 1만 1927개입니다.

2003년에서 2012년, 총 9년 동안 늘어난 직업의 수는 1300여 개이지만 2012년에서 2016년, 5년 동안 새로 생겨난 직업 수는 2600여 개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업들은 더욱 세분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직업은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옷 중 내게 꼭 맞는 옷을 고르듯, 수많은 직업 중 내게 꼭 맞는 직업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직업상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사람들에게 꼭 맞는 직업을 입혀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풍부한 정보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